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10. (금요일)

**HLMUN 대사단 OT 개최... 의제 선정 투표로 첫걸음**  
**- 불법 마약 대응 의제로 확정, 국제적 시각으로 문제 접근 -**

제3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대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9월 24일 오후 7시 공학관 1163호에서 열렸다. 이번 OT에서는 향후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의제 선정과 국가 배정이 이루어졌다.



제3회 HLMUN 대사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hlmun press)

회의에는 총 10개 팀이 참여해 세 가지 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2팀)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논의(3팀) ▲불법 마약 생산지 지원과 공급망 차단을 통한 국제 보건 증진(5팀) 순으로 표가 집계됐다. 최종적으로 ‘불법 마약 생산지 지원과 공급망 차단을 통한 국제 보건 증진’이 제3회 HLMUN의 공식 의제로 확정됐다.

이날 OT에서는 각국 대사단과 사무국의 포부도 이어졌다.

홍혁주 멕시코 대사단은 “작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의유엔 활동을 접했고, 실제 유엔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인상 깊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참여를 결정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모의유엔 대사단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과 소통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예원 미얀마 대사단은 국가 선정 이유에 대해 “미얀마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문제의 중심에 선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신흥국 경제 위기’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복합적인 현안을 분석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마약 문제의 이면에 있는 빈곤과 생존권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한 국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적·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토론을 경험해 보고자 미얀마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강동현 교육지원팀장은 “오늘 OT를 통해 참가자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각 대사단 팀에 배정된 교육지원팀 팀원과 협력해 모든 대사단이 문제 없이 의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팀이 원활히 모의유엔을 마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LMUN은 이번 OT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내달 11월 5일 공식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 담당 부서<br>제3회 HLMUN<br>PRESS팀  | 팀장 | 총괄         | 안태현      |
|   | 팀원 | 기사 작성 및 번역 | 맹민주, 김지민 |
|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a href="mailto:hallym39th_baekya@naver.com">hallym39th_baekya@naver.com</a> |    |            |          |
|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a href="mailto:hallymmun@gmail.com">hallymmun@gmail.com</a>           |    |            |          |

